

화요세평



김성식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 여고생이 중고등학생 8명에 게 관악산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나 영광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죽임을 당한 사건이나 인천의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에 너무 잔인하고 교활한 청소년 범죄를 보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는 1만4,000여 건으로 재범률도 33%에 이르러 소년법 관련법을 고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력범죄는 소년 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최고 형량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높

소년법,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일 뿐만 아니라, 소년원 송치 기간도 지금의 2년에서 10년까지로 5배 늘리고 20살이 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 측은 성인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도 저지르고 있어 성인들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범죄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도 배워야 하며 범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죄 흉포화 근본적 성찰 필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소년법 처벌 강화 이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졌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온 것을 차치하고라도 왜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류는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살아가는 자기 나라에 대해 "일본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다만 희망이 없을 뿐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다만 희망이 없을 뿐이다" 이에 대해 무슨 소리가

고 반문할지 모른다. 바로 이 땅의 청소년 문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업중단 학생 현황 조사를 보면 한 해에 5만 명이상이 학교를 그만 두고 있다. 부정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초등학교는 1만5,000여 명, 중학교는 1만7,000여 명, 고등학교는 2만5,000여 명으로 평균 20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둔 고등학교가 222개 교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학교 교육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시에만 치중하고 있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괴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은 철저히 배제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입시에만 매달린 결과 13-19세 청소년 중 35.7%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꿈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세칭 일류대학이라 하는 SKY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이 유일한 꿈이 되어서는 미래의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병우나 양승태 같은 인간들이 판치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며 쌍소리를 해대며 먹살 잡고 의자 던지는 국회의원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학교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학교는 기본교과 과정 외에도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훌륭하고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학교에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 똑똑한 학생보다 따뜻한 학생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에 힘써야 할 때

결단코 음악, 미술, 체육이 영어, 수학보다 못한 과목이라고 보지 않는다. 음악과 미술은 자칫 각박해지기 쉬운 현대 경쟁사회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며 여유를 가지고 쉬게 하고, 색다른 차원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이해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교과과정에만 넣고 실제 시간표에서는 영어나 수학교로 채워지는 대체과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흉악한 괴물로 인해 희망이 사라진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되면 평생 범죄자 낙인이 찍히고,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더 큰 범죄를 배워 나오게 되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설

전업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광주지역 전업예술인들의 월 평균 소득이 152만여 원이며, 84.6%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단위 조사에서 전업예술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0만여 원이었다. 전국 평균의 절반에 이르는 수입에 복지 수준도 열악한 상황이다. 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박금장 공간전략연구소 연구원이 광주 예술인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21.9%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4대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7.4%, 산재보험 9.9%, 고용보험 9.6% 등으로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업 예술인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46.2%,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84.6%에 달했다. 최근 대학로에서 문체부와 예술인 복지재단 주최로 진행된 예술인 복지정책 공청회에서는 새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기지 못한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원센터 마련도 시급하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활동 수익이 불규칙적이고, 사실상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 예술인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기지 못한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원센터 마련도 시급하다.

분풀이 보복성 공익신고 안된다

각종 법규위반을 시민이 직접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부작용이 늘고 있다. 화풀이성 행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사회적 불신만 키우고 있다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찰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일선 경찰서에는 요즘 적게는 50여건에서 많게는 12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좋은 제도도 정착돼야 함은 마땅하다. 더군다나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

다. 한정된 경찰인력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신고자들 사이에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식의 보복성이 잇따라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미한 시안을 무단 차선변경으로 신고하는 등의 형식이다. 화풀이성 신고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 또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팽배시켜 불신을 조장하는 적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공익신고의 제도적 취지는 좋지만 자칫 개인적 보복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선진화된 시민의식과 함께 공익신고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이유다.

기고



김정기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창업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창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창업 기업과 지역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할 목적으로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국비 6억원, 시비 4억8,000만원, 기업 1억2,000만원 등 12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1억5,000만원을 소요하여 지원 사업을 위해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 소재 1년 이상 7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으로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가 만39세

청년창업 기업 지원만이 능사 아니다

이하인 청년창업 기업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상태의 광주시 거주자에게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에서 개최됐던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에서는 광주 청년 드림 사업이 소개된 바 있다. 청년 드림 사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주최의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처럼 광주시가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뼈아프게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다. 2016년 말 기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창업을 위해 광주시와 테크노파크는 52억 2,500만원을 337개 창업 기업에 지원하였으나 이 중 185개 기업, 54.9%가 폐업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폐업한 185개 기업 중 1년 이내 폐업한 기업은 12.4% 23개 기업, 2년 이내 폐업한 기업은 36.2% 67개 기업, 3년 이내 폐업한 기업은 27.0% 50개 기업 등 3년 이내에 140개 기업 75%나

폐업했다.

청년 창업가들의 폐업은 경험과 전문성 부족, 인맥 관리의 한계 등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행정의 불성실에서도 한 몫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청년창업기업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지원방안이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광주시는 테크노파크와 '청년 예비 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테크노파크는 청년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후 5년간 고용 및 매출액 등의 사업운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광주 테크노파크는 청년창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던 13개 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미 관리 및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한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를 내버려 뒀던 광주 테크노파크 관계자와 광주시 행정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청년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특별보충금 등 대출금으로서 청년창업기업이 폐업에 이르렀을 때 청년은 신용등급

의 하락에 이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경제 능력을 상실한 위기에 놓인다.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재창업,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는 처지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 창업자에게 대출을 이행할 수 있는 은행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청년창업 및 취업정책의 기본방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단체장의 지적용, 홍보용으로서 청년창업과 취업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창업과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하루 2시간~3시간으로 주당 18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들이 15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광주광역시 지원 사업, 더불어 일자리 사업이 과연 의미 있는 정책이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광주 청년들은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숫자에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기업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가슴으로 내놓을 정책을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지광장

촉촉한 만추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특히 오전에 미숙한 사람에게 많이 내리는 비 때문에 운전이 힘들 것이다. 비가 많이 내리면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수막현상이 생겨서 자동차가 갑자기 조종성을 잃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만큼 빗

자동차 빗길운전 수막현상 주의

길 운전에는 안전수칙을 알아야 한다. 첫째, 규정 속도보다 20%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타이어와 노면 간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평상시와 비교해 속도를 최소 20% 감속시켜야 하며,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철에는 40~50% 감속시키는 게 좋다.

둘째, 차간 거리는 2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역시 위와 같은 논리이다. 셋째, 전조등을 켜야 한다. 전조등은 주로 야간에 켜지만 비가 오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주야간 모두 켜 주는 게 좋다. 전조등을 켜면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주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차량 간 사고 뿐 아니라 보행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수막현상을 피하기 위해 급출발, 급제동, 급기속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사고는 언제 일어날 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다.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백종희

'혈세만 탐하는' 전남 사립학교들

기지수첩



정근산  
정치부 부장

전남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전남 사립학교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냈다.

도의회 상임위 차원의 정책보고서는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끌었고, 보고서에 담긴 전남 사립학교의 백태는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제멋대로 사학 운영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9월 현재 86개 사립학교 중 38곳(44.1%)에서 법인 이사장 등 친인척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의 자녀, 6촌 형제, 배우자의 이종조카, 이사의 처 등 다양한 친인척 관계를 형성했고, 많게는 5명이 근무하기도 했다.

부실한 학사 운영과 비리도 다반사였다. 영암여고는 일부 교사들이 수업시간 목포와 남약 등지에서 유치해온 학생들에게만 질문하는가 하면 1등 학생의 노트를 가져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지행했다.

목포 흥일중은 심화반 형태 학급을 운영하며 최상위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 교재에서 배점이 높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해 시험에 출제해 반발을 샀다. 또 목포 문태고는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고, 진도고는 파견교사의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제멋대로 운영에도 이들

사학은 천문학적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도내 86개 사립학교에 쏟아부은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금은 모두 8,860억원으로 한해 평균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이들이 내야 할 법정 부담금 납부율 평균(16.9%)을 감안하면 교직원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재단전입금 미납액을 비롯, 친인척 급여까지도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는 정책보고서 말미에 "지역 사립학교들이 국민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최소 자치권만 남긴 경영권 전환, 교사 위탁제용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시범에 출제해 반발을 샀다. 또 목포 문태고는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고, 진도고는 파견교사의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제멋대로 운영에도 이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월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철민 편집국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경제부 (062) 720-1066-67 사회부 (062) 720-1050-54 사회2부 (062) 720-1043-45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인부 (062) 720-1040
편집부 (062) 720-1070 기획실 (062) 720-1005 논설실 (062) 720-1032 월간국 (062) 720-1006-07 관리국 (062) 720-1012 서무국 (062) 720-1098 사업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처 다원인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